

# 한전, 국내기업 첫 국내외 인적자원개발 '석권'

### 美 인재개발협회 수상 이어 한국 HRD협회 종합대상도 학습 모델·환경 조성, 맞춤형 교육, 디지털 배지 등 호평

한국전력이 국내기업 최초로 국내·외 인적자원개발 종합대상을 석권했다.

한전은 14일 "지난 5월 세계적 권위의 인적자원개발 단체인 '美 인재개발협회(ATD)'가 주관하는 BEST HRD Award 수상에 이어 전날 한국 HRD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대상'에서 최고 등급인 종합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대상은 기업의 경영 방침과 연계된 인재 육성 전략과 체계, 인사혁신 성과 등을 평가해 수여하는 상으로, HR분야 전문가와 교수진, 자문위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거쳐 선정되는 국내 최고 권위의 HRD(인적자원개발) 종합대상이다.

한전은 '국가 미래 성장에 기여하는 글로벌 에너지 리더'로의 도약을 위해 지속적인 인적자원개발 혁신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수상에서

'HRD 혁신의 3대 성과'를 높게 인정받았다.

성과 중 먼저 현장 중심의 일학습병행 교육체계인 '70:20:10 학습모델'을 기반으로 자율학습 형태의 '축적의 시간' 및 '전문자격증 취득 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70:20:10 학습모델은 조직 내 학습과 개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프레임 워크로 70%는 업무경험 기반 학습, 20%는 직원 간 피드백 기반 학습, 10%는 표준 교육을 의미한다.

또 학습조직과 멘토링을 연계해 실질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학습 환경도 조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입사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직원 성장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신입사원 교육, 단계별 직무교육(기본-실무-전문)과 리더십 교육 등 다양한 과정을 운영 중이며, 퇴직을 앞둔 직원들에게는 제2의 인생 설계를 돕기 위한 '행복미래설계' 교육프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윤리 전 직원이 교육을 통해 축적한 역량 수준을 회사가 공식 인증하는 '디지털 배지'를 도입하고, AI 기반의 개인 맞춤형 교육 큐레이션 모델 개발에 착수하는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최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여러 시도를 해 왔으며, 이 같은 AI 기반의 미래지향적 HRD 구현을 위한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한전은 지난해 인사혁신처가 주관한 공공 HRD 콘테스트에서 2개 분야 대우령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인재 양성 역량을 대외적으로 꾸준히 인정받고 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ATD BEST Award와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종합대상을 한 해에 동시에 수상한 것은 혁신적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HR 부서의 노력과 함께 한전 전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낸 뜻깊은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국가 미래 성장에 기여하는 글로벌 에너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HR을 한 전이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채만 기자



나주경찰, 녹색어머니연합회 위촉식·간담회

나주경찰서는 14일 "전날 경찰서 2층 영남마루에서 '2024년 녹색어머니연합회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나주경찰서는 신규회원 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토론을 했다. 회원인 나주녹색어머니연합회장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사회와 협력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장진영 나주경찰서장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녹색어머니연합회에 신규 가입한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경찰도 '어린이가 먼저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준환 기자



순천농협, 김찬석 상임감사 선출

순천농협은 14일 "전날 대의원·임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차 임시대의원회를 열고 김찬석(사진 오른쪽) 상임감사를 선출했다"고 밝혔다.

상임감사는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 제도다. 모집 공고 후 인사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을 거쳐 대의원회에서 최종 선출되며, 임기는 3년이다.

김찬석 상임감사 당선인은 "조합원의 재산 보호와 경영 투명성을 강화해 신뢰받는 순천농협을 구현하겠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 시스템 운영을 강화하고 공명정대하고 청렴한 감사 업무 수행으로 건전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양홍철 기자



장흥경찰, 으뜸 자율방범대 인증패 수여식

장흥경찰서는 "최근 장흥 읍내 자율방범대 사무실에서 이승일 연합대장 및 각 읍·면 자율방범대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으뜸 자율방범대 인증패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증패를 받은 서부 자율방범대는 방법 순찰·범죄 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이바지해 장흥 자율방범대 17개 지대 중 으뜸 자율방범대로 선정됐다.

박홍원 경찰서장은 "으뜸 자율방범대 선정을 계기로 자긍심을 갖고 지역 방범 활동에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노홍록 기자



## 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행락철 전세버스 단속 강화"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는 14일 "가을 행락철 교통사고 사망자가 집중됨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대형승합차 안전점검 및 불법행위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지난해 월별 교통사고 사망자는 10월과 11월 각각 10.4%·10.2%, 전세버스 사고는 10.4%·12.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 관계부처와 합동

해 지역 축제 행사장 및 연계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운행기록부 부착 여부 ▲좌석 안전띠 착용 ▲음주 운전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여부 등이다.

문재업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장은 "가을 행락철 교통량이 급증하고 지·정체 등 교통안전 여건이 좋지 않아 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며 "모두가 화창하고 안전한 가을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교통법규를 준수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주성학 기자



## 담양군, '전남도 마을공동체 한마당'서 다수 수상

담양군은 "최근 담양종합체육관에서 열린 '2024 전남도 마을공동체 한마당 행사'에서 담양군 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와 담양군 마을공동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14일 밝혔다.

행사에는 정찬권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장, 이병노 담양군수, 이규현 전남도의원, 정철원 담양군의회의장 등 지역 주요 인사들과 함께 전남도 517개 마을공동체와 마을활동가들이 모여 해성향을 이뤘다.

마을공동체 활동 경진대회에서는 담양군풀

뿌리공동체지원센터가 전남마을공동체 지원, 마을활동가 운영, 농촌인재학교 등 다양한 활동 및 지원 사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센터로 선정됐다.

또 담양군 기사문학면 정촌마을자치회가 행복돌봄 부문 최고 영예인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영상기록공모전 시상식에서는 담양군 대덕면 미디어동아리가 마을 명소·문화 소개 영상 제작으로 우수상에 선정되는 등 다수의 수상 영광을 누렸다. /담양=정승균 기자



## 광주지검 목포지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청렴 플로깅'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과 목포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14일 "전날 목포 유달산 일원과 목포역을 중심으로 합동 청렴 플로깅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광주지검 목포지청 직원, 목포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를 비롯한 운영위원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목포지청은 지역사회 환경 정화를 통해 생활

속 청렴을 실천하며, 공정하고 부정·부패 없는 직무 수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대내·외에 적극 표명했다. 또한 소속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고취하는 데 힘썼다.

목포지역범죄피해지원센터는 범죄 피해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 만큼, 사전 예방과 신속한 피해 치유를 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역센터가 지원하는 사업임을 적극 홍보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청소년 도박근절 챌린지' 동참

광주시교육청은 14일 "이정선 시교육감이 청소년의 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도박근절 프로젝트'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캠페인 참여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고 "스마트폰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이버 도박게임은 '재미'가 아닌 '사기범죄'다"며 "친구의 도박 권유가 있더라도 단호하게 거절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이 기자

## 전남관광재단, '코리아 미스 엑스포'서 홍보전

전남관광재단이 최근 3일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2024 KOREA MICE EXPO'에 참가해 전남도의 MICE 산업을 홍보했다.

이번 전시회는 국내외 MICE 업계 관계자 3천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동향과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로 전남도 MICE의 매력을 알리는 기회가 됐다.

전남관광재단은 홍보 부스를 통해 전남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문화유산, 유니크한 MICE 시설들을 소개했다.

특히 전남의 여수 예술마루와 같은 특색 있는 유니크베뉴의 장점을 강조하며 지역 맞춤형 MICE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김영신 전남관광재단 대표이사는 "KOREA



MICE EXPO는 전남을 알리고 MICE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라며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전남을 MICE의 중심지로 성장시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

## 송원대 철도대학, '기업분석경진대회' 대상 수상

송원대학교는 14일 "전날 호남대 상하관에서 열린 '2024 기업분석경진대회'에서 철도대학 학생들이 대상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고용노동부 주관, 호남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주최로 열렸으며, 송원대 1개 팀, 호남대 8개 팀이 출전해 송원대 '대한의 수레'팀이 대상을 받아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대한의 수레'팀은 송명기(철도운전시스템학과·23학번) 학생을 리더로 임현(철도운전전체학과·23학번) 학생, 심지성·김진홍·임영광(철도운전시스템학과·20학번) 학생 등 총 5명으로 꾸려졌으며 '대야TI 기업분석'을 주제로 철도 신호에 관한 내용을 발표해 대상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김대이 기자



김양수 철도운전시스템학과장은 "학생들의 수상에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며 "호남 유일 철도 특성화 대학으로 우수 학생을 양성, 철도 공기업 취업 등을 연계해 학교와 국가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대이 기자

